

아카이브

용감한 여성 아카이브

brave women's archive

<용감한 여성 아카이브>는 성매매로 상처받는 이들의 삶을 주목하는 막달레나공동체의 1985년부터 축적해온 문서와 이야기를 담은 디지털 아카이브

<brave women's archive> is a digital archive that contains documents and stories accumulated since 1985 by the Magdalena Community that pays attention to the lives of those hurt by prostitution.



성매매로 상처 받은 이들과 함께 하는
막달레나공동체 용감한 여성 아카이브

여성운동 위키

막달레나공동체 위키

magdalena wikipedia

성매매여성들의 쉼터로 시작된 막달레나공동체의 역사와 출판물 등을 담은 위키

WIKI, which contains the history and publications of the Magdalena community, which began as a shelter for prostitution women.



막달레나공동체의 소개, 연혁, 활동, 출판, 인물 등을 기록한 위키



(사)막달레나공동체

T. 02-3275-1985

E. magdalena@empas.com

H. www.magdalena.or.kr

막달레나공동체 아카이브는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사)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이 후원하고, 한국여성재단이 지원한 "여성공익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막달레나공동체



막달레나공동체는

성매매로 상처받은 이들의 행복과 삶의 권리에 주목하며,
하느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나눔, 존중, 상생, 희망의 역사를
추구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용감한여성 아카이브 소개

용감한 여성 아카이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막달레나공동체의 용감한 여성 아카이브는 1985년부터 현재까지 축적된 조직의 모든 기록을 순차적으로 정리한 디지털 아카이브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조직의 역사와 해온 일들의 의미, 가치를 돌아보고 막달레나공동체의 장기적인 비전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막달레나공동체의 시작

“용산에서 성매매로 생계를 이어가는 여성에게, 어린 딸이 있었어요. 다섯 살짜리 여자 아이는 어머니가 일하는 밤에 용산역 광장에서 놀다 잠들곤 했는데, 어느 날 낯선 남자가 그 아이의 옷을 벗기려는 걸 목격하고 신고했습니다.” 이옥정 대표는 이 일을 계기로 용산 성매매 여성들과 그 아이들을 지원할 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1985년 7월 22일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 기념일에 용산역 앞 낡고 허름한 건물에 위치한 경남 식당 2층 골방에서 이옥정 대표와 문애현 수녀님, 서유석 신부님이 뜻을 모으고 서울대교구 가톨릭사회복지회의 지원을 받아 막달레나공동체의 모체인 ‘막달레나의 집’을 설립했습니다.

‘막달레나의 집’은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상처 입은 여성들이 함께 모여 자신이 처한 현실을 스스로 극복하며 서로에게 삶의 용기를 주는 곳으로 자리매김 해 왔습니다. 이후에는 2005년 ‘막달레나공동체’로 새롭게 거듭나면서 다양한 모습으로 여성들 곁에 함께 했습니다. 여성들의 쉼터인 ‘막달레나의 집’과 ‘너른 쉼터’, 중장년여성들의 평안한 노후를 위한 쉼터 ‘보듬네’, 용산집결지 여성들의 상담과 건강을 돌보는 상담소 ‘이나’와 ‘햇살고운진료소’, 이태원 클럽지역 드롭인센터 ‘이태원사랑방’,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지원을 돕기 위한 무상거주 시설인 ‘그룹홈’과 예비사회적기업 ‘동고리’, 성매매대안활동을 추구하는 ‘용감한여성연구소’의 지속적인 연구사업, 위기청소년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진료소 십대여성건강센터 ‘나는 봄’ 등 현장에서 많은 흔적을 남깁니다. ‘위로’와 ‘안식’으로 어제의 상처를 보듬던 쉼터가 ‘연대’와 ‘교육’으로 더 나은 오늘을 짓고, ‘자활’과 ‘예방’으로 더 밝은 내일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나눔, 존중, 상생의 ‘동근 밥상’

우리 인사말에서 빼 수 없는 단어, ‘밥’, 비록 한 글자에 불과하지만, 그 의미는 짧지 않습니다. ‘함께 살며 함께 밥을 먹는 사람’을 우리는 ‘식구(食口)’라 하지요. ‘식구’는 ‘한 조직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을 뜻하기도 합니다. 막달레나의 집에서는 그곳에 머물렀던 이들 모두를 ‘식구’라 부릅니다. 1987년부터 함께해온 ‘동근 밥상’에는 막달레나 식구들의 역사가 담겨있습니다. 모든 이들이 동근 밥상 주위에 둘러앉아 아무 차별 없이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는 곳. 서로의 희노애락을 나누고 위안과 인간적 배려를 받는 곳. 막달레나공동체의 ‘동근 밥상’은 사람들이 서로 친구가 되게 했으며 서로에게 용기를 심어 주고 새 삶의 희망을 안겨주는 원동력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옥정 대표는 “이미 스스로 죄인이라 여기며 사는 이들인데, 그저 건강하기를 바라며 함께 밥을 먹었을 뿐”이라며 ‘동근 밥상’의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동근 밥상’은 함께 한 세월만큼 낡고 반들반들해졌습니다. ‘식구’로 함께 했던 이들이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든, 따뜻한 밥을 나눠 먹던 기억은 더 나은 삶을 위한 힘이 되어 주리라고 믿습니다.

